

2010년 자율관리공동체 관리지원사업 주요 내용

자율관리어업 선진화 통해 수산업 재도약 발판 구축

어업분쟁 해소위한 자율조정협의회 - 컨설턴트 운영 강화 광역단위 워크숍 6회 개최 ... 북유럽 해외연수도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자율관리어업 선진화를 통해 수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관련,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산업에서는 올해 자율관리어업이 내실화를 위해 교육·홍보사업에 역점을 두고 공동체 지도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워크숍 및 민간컨설턴트 운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워크숍은 지난해 5회에서 6회로 늘려 2월중 전남지역부터 오는 9월까지 △강원·경북·울산 △경기·인천·충북 △경남·부산 △제주 △전북·충남 지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율관리어업과 관련된 지도자·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상반기중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컨설턴트 운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국수산업의 컨설턴트 10명을 활용, 신규공동체를 대상으로 시·도 수산사무소장과 협의해 대상 공동체를 선정해 집중



정부는 올해 공동체 신규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법 개편하고, 성숙된 공동체는 어업의 사업까지 확대, 어촌 핵심경영체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적인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참여 공동체가 없는 전북과 제주를 부진 공동체를 대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를 기존 일본에서 탈피, 북유럽의 선진 양식시설 등을 둘러보고 우리 어촌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일본지역을 대상으로 5회 실시했으나, 올해는 4월중 1차로 일본(전 공동체), 6월중 2차로 북유럽(복합 공동체) 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어업분쟁 해소를 위한 자율조

정협의회 운영도 강화된다. 오는 3월중 분쟁조정과제 선정을 위한 총괄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쟁당사자간 의견 조정을 위한 분과협의회를 수시로 개최, 올해 10건의 분쟁조정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와 관련하여는 예비평가인 지도자협의회 평가(10%) 및 지자체 평가(90%)를 거쳐 오는 6월까지 본평가를 마무리하고, 7월 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업 재도약의 발판 구축을 위해 최근 '新수산 30대 프로젝트'를 확정짓고, 이 가운데 자율관리어업 선진화를 으뜸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1월12일 전국의 수산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新수산 30대 프로젝트 평가회의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어촌의 핵심경영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신년사

'수산자원 증강 위해 민·관 지혜 모아야'

경인년 새해를 맞아 전국 수산인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행운이 따르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재영
한국수산업 회장

지난해 우리 수산업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근해 주요어종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어가도 예년에 비해 다소 높아져 오랜만에 주름살을 펴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고유가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재를 슬기롭게 잘 견뎌낸 우리 수산업계와 자원조성 등에 힘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어촌운동'인 자율관리어업이 전국 연안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산자원이 점차 회복추세를 보이는 것은 현장에서 땀 흘려주신 어업인 여러분의 노고 덕택이라 여기며, 앞으로 더욱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쟁력도 생기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도 생겨납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수산인 모두가 수산업이 가능성 있는 산업, 희망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과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수산업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합시다. 금년 한해 수산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성장·내병성 뛰어난 신품종 김 시험양식 성공

전남수산사업소 해남지소, 특허출원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해남지소는 해남해역에 적합한 김 신품종 개발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험양식을 실시한 결과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에 성공, 현재 특허 출원중이다.

수산기술사업소 해남지소는 그동안 신품종 김 개발을 위해 해남 송지면에서 형질이 뛰어난 대형 엽체(길이 108cm, 폭 79cm, 일명 슈퍼김)를 채집 선발해 해역별로 부류식어장 2개소와 지주식어장 1개소로 나눠 시험양식과 함께 형질 및 해양환경을 매월 조사했다.

시험양식 결과 신품종 김은 갯병 발생 시기에 병해 발생이 거의 없어 내병성이

강했으며 일반김과 같이 양식했을 때 성장도가 월등히 빨라 기존 김에 비해 엽장이 12.5cm 길고, 엽폭이 5.43cm 넓었으며 엽체 색이 짙은 흑녹색을 띠고 있어 양식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개발에 성공한 김 신품종은 획기적인 품종으로 이로 인해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시행시 국내 김양식 어업인들이 내야 하는 로열티로 연간 20억원 이상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 등지에 신품종을 수출할 수도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여수지소, 2월5일까지 사업신청서 접수

전남수산기술사업소 여수지소는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류양식어가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으로 7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합사료(EP) 구매자금지원사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해면과 내수면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1어가당 2억원 한도로 금리는 연 1%, 상환기간은 2~3년으로 하고 어업인의 신용등급과 어업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사업신청서 제출기한은 2월5일까지이며, 선정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월 1일 '어선안전의날' 지정

매월 1일이 '어선 안전의 날'로 지정돼 어업인 자체점검을 생활화하고 해난사고 발생상황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된다. 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어업인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된다.

알림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 원고모집

지난 2001년 '새 어촌운동'을 모토로 시작된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이제 정착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확산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환기를 맞고 있는 정책이 더욱 탄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자율관리 공동체들의 역할이 중요할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산업에서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 및 어촌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성공사례를 모집, 이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고자 합니다. 어업인 및 어촌지도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대상 : 자율관리어업 참여 어업인 및 지도담당 공무원
- ▶ 내용 : 공동체 성공사례 등 자율관리어업 관련 사항
- ▶ 문의 : 한국수산업 자율관리지원팀 (전화 02-589-4604)

※ 채택된 원고에는 우리 회 규정에 따라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2010년 달라지는 수산정책

자율관리 육성사업비 지원제도 변경... 5톤미만어선 입출항신고 간소화

외해 가두리양식어업 시설 기준 완화 해파리 피해도 어업재해 범위에 포함

금년부터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바뀌어 4회 이상 또는 6억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졸업제가 시행된다. 외해 가두리양식어업 시설 기준이 완화되고 해파리 대량 발생에 의한 어업피해도 어업재해범위에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달라지는 수산정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경인년 새해 달라지는 수산정책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졸업제 도입 = 지금까지 4회 이상 또는 6억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체는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조성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어업재해에 해파리 피해 포함 = 1월부터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어업재해 범위에 해파리의 대량 발생을 포함하고, 피해 어가의 개념에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 외에 포획·채취하는 어선 어업도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어업재해와 관련되는 어업용 시설도 어선, 어구, 어망 등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전북 해상가두리 양식장 시설비용 기준 상향 조정 = 지난 1월1일부터 패류 양식어업중 전북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시설비용 기준을 종전 5~10%에서 5~20%로 확대됐다.

□외해 가두리 양식어업의 시설기준 완화 = 지난 1월1일부터 외해 양식어업의 어장 수심이 35m 이상,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은 2%에서 20%, 어장구역 한계는 10ha에서 20ha로 확대돼 외해 양식어장 및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한시 어업허가제도 도입 = 오는 4월23일부터 어업을 한시적으로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특정한 해역

에 특정한 자원이 일시적으로 대량 출현하는 경우 자원평가를 토대로 TAC(총허용어획량)를 정하고,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어선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지원확대 및 입찰제 도입 = 오는 3월부터 어선감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폐업지원금을 최근 3년간 평균수익액의 50%를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입찰제로 변경해 경쟁방식을 도입하되, 사업 참여가 저조할 경우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5톤 미만 어선 출·입항 신고 간소화 = 1월부터 5톤 미만의 어선이 항·포구 출입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2톤 미만 어선 3만4,267척만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1만4,195척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확대 = 오는 4월23일부터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한 관리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어선도 현행 5톤 미만에서 8톤 미만까지 증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동성 구획어업중 형망어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총 허용어획량을 설정,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 어선이 8톤 미만까지 확대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설치 완화 =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

시설은 바닥면적 1,000㎡, 3층 이하의 소규모 시설만 가능했으나, 오는 4월23일부터는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수산물 어획증명서 발급 = 'EC IUU(불법어업) 통제법령'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EU(유럽연합)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어획됐음을 확인하는 어획증명서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어획증명서는 수출업자가 해당 지역의 수산물품질 검사원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을 가공해 EU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가공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 품목 확대 = 종전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등 7개 품목에만 가능했으나 1월부터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3개 품목이 추가됐다.

□신 갯벌어업 프로젝트 추진 = 오는 2월1일부터 갯벌어업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이와 관련, 올해 갯벌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에 216억원과 개체굴 및 해삼 산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10억이 투입된다.

□주요 어종 조업금지 기간·체장 조정 = 동해안 대게의 주 산란·서식장소인 경북 울진군 왕돌초 일부수역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대게 자원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경북 연안 일정 수역을 연안통발어업과 근해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쥐노래미, 참홍어, 은어, 꽃게, 대게류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관련 규정을 조정했으며, 참조기는 근해유자망어업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했다.

□서해 접경수역 어장 확장 = 지난 1월14일부터 어로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서해의 접경수역 2개소 어장이 전면 확장됐다. 백령도 서쪽 C어장은 종전 57km²에서 102km²로, 소청도 남쪽 B어장은 82km²에서 133km²로 확대됐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오는 4월23일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대상인 어선·어구 또는 상속을 받은 때에는 그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사유수면의 어업신고 의무화 = 오는 4월23일부터 수산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사유지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 설치 가능 = 오는 4월23일부터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도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투자계획이 확정될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을 통해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오는 4월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가 마련되고, 수산자원 조사·평가의 실시 및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어업자협약제도가 도입된다.

□연근해어업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5년마다 기간을 정해 연근해어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유희 어업허가를 일제 정비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어선등록·검사업무 체계 일원화 =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원화돼 있던 어선등록(농림수산식품부)과 어선검사(국토해양부) 업무가 일원화 된다. 이와 관련, 어선규모, 어업형태, 조업구역 등 특성에 맞는 안전설비기준과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확대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을 개정, 지원대상 업종에 소금산업을 포함하며, 어업인후계자의 나이 제한은 종전 40세에서 45세, 지원도는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4천만원에서 5천만원(신규 창업자 1억원), 전업경영인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린다.

□어업인력 육성 활성화 = 귀어·귀촌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어촌에 신규 진입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정착자금 2천만~2억원과 함께 2천만원 이내의 어가구입비를 융자해주며, 5백만원의 어가수리비 보조 및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어업정책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시행 = 오는 4월부터 어선원보험에 대해 5톤 미만의 임의 가입어선이 단체로 계약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 5톤 미만의 어선원보험에 한해 현재 70%인 국고보조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입수산물 미설정 항생물질 등에 대한 잔류기준 신설 = 동물용 의약품중 잔류기준이 없는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0.01mg/kg 이하)을 신설, 불량 수산물 수입을 차단한다.

특 별 기 고

자율관리어업 정착을 위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온 자원남획 및 어장오염으로 인해 연근해 어족자원의 감소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자율관리어업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은 기반조성기를 지나 어선어업공동체 확산 및 지도자협의회 핵심세력 육성 및 우수공동체 발굴에 힘쓴 결과 이제는 정착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수산자원 관리는 정부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어업인의 참여를 바탕으로, 광역공동체를 육성하는 등 자율관리어업의 영역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001년 출범당시 63개소의 참여공동체 수는 10배 이상 늘어나는 양적인 성장세를 이뤘지만 아직 질적인 면에서의 완성도는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실제 어촌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육성사업비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공동체 지도자에 대한 불신 또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바꾸어 4회 이상 또는 6억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졸업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졸업대상에 포함되는 우수공동체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매년 일정수의 특별지원사업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참여 공동체에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육성사업비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제도



김상한
경기도수산사무소장

개선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올해부터는 어촌현실에 맞는 자율관리어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하는데 주력했으면 한다. 지금 우리 어촌 구성원은 일부 어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음을 감안, 책자보다는 영상물을 통해 우수공동체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교육을 받는 공동체의 현실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해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신의 일까지 제쳐두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애써는 위원장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장의 처우개선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진다. 공동체의 활성

화의 승패는 위원장의 의욕과 추진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업인 스스로에 의한 자원관리만이 지금의 열악한 수산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어업자원의 산란 서식장 보호 및 보전에 더욱 힘쓰는 한편 금어기, 금지체장 제한, 어장휴식년제 등 각종 수산자원 조성정책에 솔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수산자원은 공산품과 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조성 사업에 따른 효과를 너무 성급하게 기대해서는 안된다.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품종선택, 환경조사, 관리기간, 입지여건, 자체 부담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때 바다는 결코 우리 어업인들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전북, 생산자 중심의 '자율관리협의체'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전북 해상가두리 시설비율도 상향조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산업의 수급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1월1일부터 전북 해상가두리양식장의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현행 5~10%에서 5~20%로 상향 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한 양식장 시설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생산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관리협의체 구성은 전북 관련 생산자, 유통인, 전북주식회사, 전북연구회, 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출하시기 및 단

가 등에 대한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 소비촉진 확대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과 전문점 및 직거래 확대, 전북-Day(7.19) 등 소비촉진 행사도 추진한다.

전북 시설 비율을 20%로 확대할 경우 향후 3년 후에 약 40%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나, 가격 안정에 따른 내수촉진과 일본, 중화권의 수출 증대 등으로 전체적인 수급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2010년 수산예산 1조3,600억 확정

전년대비 2.1% 증액 ... 농림수산식품부 전체는 14조 6,738억

올해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모두 14조 6,738억원으로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소관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2009년 본 예산 대비 71억원 증액됐다.

수산·어촌부문은 1조3,606억원으로 전년 1조3,330억원보다 2.1%(276억원) 늘어났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양식기반

구축(119억원→154억원), 원양어업 활성화 지원(35억원→38억원), 농림수산식품 R&D통합정보시스템 구축(10억원) 등에 대한 지원도 반영됐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10년도 예산·기금사업의 총지출 규모(14조 7,000억원)는 전년대비 0.3% 증가에 그쳤지만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은 지난해보다 6.2% 높은 수준으로 국가재정증가율(2.5%)를 크게 상회한다"고 밝혔다.

5톤 미만 어선 출입항 전화 신고

서해 접경 C·B 어장 96km² 확장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부터 출입항 신고를 간소화해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어선출입항시 신고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어선범위가 5톤미만까지 확대되고 어로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서해 접경수역 2개 어장이 대폭 확장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출입항 신고 간소화로 전체 연근해 어선 5만7,177척 중 25%에 해당하는 2톤에서 5톤 미만 어선 1만4,195척의 조업불편을 덜어주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1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함께 어선의 피아식별을 위해 지난 1978년부터 운영해 오던 '선박식별 신호포판' 소지제도도 폐지했다.

확장된 어장은 백령도 서쪽 C어장을 현행 57km²에서 102km²로 45km²를 확장하고 소청도 남쪽 B어장을 현행 82km²에서 133km²로 51km²를 늘리는 등 모두 96km²를 확장했다.

외해 양식어장 수심 35m이상 기준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시설비율 20%·어장규모 20ha까지

어류 등 양식어업 중 외해가두리 양식어업의 어장의 수심과 규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등 기준이 마련돼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외해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을 해안선에서부터 3km밖의 35m 이상으로 하고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은 2%부터 20%까지, 어장규모 한계는 10ha에서 20ha로 확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이같은 시설기준 완화는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심을 확대해 외해 양식어장 및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대상에 '어업경영체도 포함' 추진

김우남 의원 개정안 발의

현재 농업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가 어업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우남 의원 등 13명은 지난 1월13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어업분야도 WTO-DDA협상 및 FTA 등으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직접지불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농업 경영체에 대해서만 소득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어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사업소 탐방 / 경기도수산사무소

자율관리공동체 확산위한 현장교육 강화에 주력

굴 폐각 활용, 바지락 어장환경 조성시험 착수

경기도수산사무소(소장 김상한)는 지난 1월15일 청평내수면어촌계 어촌계원들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구성된 청평내수면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 신규참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경기도수산사무소는 신규 자율관리공동체 발굴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기존 24개 공동체(해면 19개소, 내수면 5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이관된 이후 대어업인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내 어업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① 자율관리어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난 1월15일 열린 어촌계원(청평내수면) 대상 교육모습 ② 수산시험연구사업 발표 및 어촌계장협의회 ③ 자율관리공동체 현판식

금년도 경기도수산사무소의 역점사업으로는 김양식과 바지락 종패생산 복합양식시험을 들 수 있다. 친환경 지주식 김양식시설을 이용하여 바지락 종패발생을 유

도, 안정적인 바지락 종패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화성시 도리도 지선 4ha를 선정, 올해부터 3년간 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굴양식 후 폐기되는 굴 폐각을 이용하여 바지락 양식어장의 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굴 폐각의 적정 살포량, 크기 등을 규명하는 시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굴 껍질을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아직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경기도수산사무소의 시험연구 결과에 따라 바지락 어장조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기수산사무소에서는 올해 관내 주요품종인 김, 바지락, 굴 등 품종별 주요 생산기기에 전문지도반을 편성, 현장 방문지도를 강화해 어업인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2010년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 (227개소)

■ 신규 공동체 (17개소)

□부안(1개소) △청사(김병수,복합) □인천(2개소) △홍왕(민명섭,마을) △내개(박용우,어선) □강원(7개소) △고성군 봉포(배오복,마을) △동해시 묵호자망(강득용,어선) △동해시 어달자망(고경수,어선)△속초시 채남기연합회(이성삼,어선) △강릉유자망(김진호,어선) △동해시 수산업경영인(김인수,어선) △홍천강내수면(정철경,내수면) □충북(1개소) △옥천금강염성군,내수면 □충남(1개소) △태안군 황촌2리(김경옥,양식) □전남(5개소) △고흥군 새우조망(박태길,어선어업) △순천시 외온(박흥수,양식어업) △완도군 충도리(김만우,양식어업) △영광군 월봉(최종천,복합어업) △신안군 고평사리(강춘복,마을어업)

■ 기존 공동체 (210개소)

□부안(5개소) △영도구 동삼(안종찬,복합) △강서구 녹산(이종옥,양식) △기장군 이동(박주안,마을) △기장군 이천(남인희,마을) △기장군 멀치유자망협회(이수길,어선) □인천(9개소) △남3리(최치호,복합) △진촌(김복남,복합) △연지(김복남,복합) △내리(문준홍,마을) △선두(김봉현,어선) △소청(김기철,어선) △초지(고현수,어선) △동검(김정원,어선) △옥죽(김원호,복합) □울산(4개소) △어물(김주중,마을어업) △대송(주삼조,마을어업) △우가(김작지,마을어업) △일산(정성광,마을어업) □경기(6개소) △화성 백미(김호연,마을) △화성 제부(최효균,마을) △화성 국해(박춘근,마을) △안산 종현(김부열,마을) △파주(문호근,내수면) △여주(구본경,내수면) □강원(23개소) △고성군 거진(김계진,광역(마을)) △강릉시 주문리(김부영,광역(마을)) △동해시 묵호동(정찬농,광역(마을)) △강릉시 영진(홍성문,마을) △삼척시 장호리(홍영기,마을) △양양군 동산(홍동진,마을) △강릉시 주문5리(김동기,마을) △양양군 남애2리(유종태,마을) △강릉시 경포사근진(박삼량,마

을) △양양군 인구(김조광,마을) △고성군 가진(오성택,마을) △속초시 외운치(박해송,마을) △속초시 강원흥계동발(최순화,어선) △강릉시경영인연합회(이성과,어선) △속초시 대포자망(허장만,어선) △동해연안연승(권화진,어선) △강릉시 주문진연승(이중남,어선) △속초연안유자망(장재수,어선) △강릉연안동발(이상률,어선) △동해시 대진(최장명,복합) △강릉시 남향진(김원학,복합) △강릉시 안목(박경옥,복합) △춘천호(경태현,내수면) □충북(3개소) △괴산(이진익,내수면) △청원 문의(이찬희,내수면) △보은 화남(정진섭,내수면) □충남(14개소) △태안군 법산(조한왕,광역) △보령시 주고(박종학,광역) △보령시 서해잠수기(이상배,어선) △보령시 근해안강망(박영선,어선) △태안군 영목항통발(고덕중,어선) △태안군 백사장(김규택,어선) △보령시 연안개량안강망(이기준,어선) △태안군 학암포(문광순,복합) △태안군 라향(양진목,복합) △보령시 호도(장도순,복합) △태안군 의향2구(이충경,복합) △보령시 외연도(진세민,복합) △서천군 월화성(최용수,복합) △태안군 드르니(최종진,복합) □전북(13개소) △부안군 진리(서봉신,마을) △부안군 도청(김성호,마을) △부안군 대리(김인수,마을) △부안군 격포수협회(김정규,어선) △고창군 구시포(김영진,어선) △부안군 식도(박희영,어선) △군산시 장자도(김중주,복합) △부안군 대항(이찬옥,복합) △군산시 신시도(김영현,복합) △부안군 벌금(조기현,복합) △군산시 무녀도(최남동,복합) △부안군 왕등도(남정서,복합) △김제시 선암제내수면(김보기,내수면) □전남(56개소) △여수 신월(곽영수,마을) △여수 복산(박행수,마을) △여수 적금(박종길,마을) △여수 사곡(김천현,마을) △여수 원포(도인용,마을) △여수 중앙(김영근,마을) △여수 두문(윤상정,마을) △여수 거문(임석희,마을) △여수 상동(곽남철,마을) △여수 화태(박홍광,마을) △여수 연도(김본준,마을) △여수 오천(신진호,마을) △

순천 우명(이종오,마을) △순천 용두(신평식,마을) △고흥 여의천(김옥근,마을) △보성 상장(김만석,마을) △보성 제두(김중군,마을) △보성 하정(장동섭,마을) △보성 서당(김복삼,마을) △보성 호산(왕평호,마을) △장흥 신월(김민홍,마을) △장흥 수문(정재남,마을) △장흥 사촌(김두홍,마을) △강진 원마구(김사우,마을) △강진 수인(안창열,마을) △강진 남호(정근수,마을) △강진 백사(황성환,마을) △강진 봉황(이장호,마을) △해남 어불(신형석,마을) △여수문어단지(강재화,어선) △여수잠수기(하재규,어선) △강진낙지통발(차영호,어선) △무안 동암(정무상,어선) △영광 하나월어선어업(박영태,어선) △영광 계마어선어업(김영호,어선) △완도낙지통발(박순봉,어선) △진도새우조망(김영옥,어선) △진도 신진(문천주,어선) △고흥 여회(강공남,양식) △고흥 청석(장현호,양식) △고흥어류양식(김성윤,양식) △고흥 신평(정덕재,양식) △고흥 동촌(정중환,양식) △해남 중매(김창렬,양식) △해남 내정(이승철,양식) △완도 충도(이현,양식) △완도 해동(김영수,양식) △완도 지리(김성철,양식) △완도 당산(천재근,양식) △진도보전참전복(한우석,양식) △진도 모도(김두성,양식) △신안 이곡(권성복,양식) △신안 심리(이정두,양식) △무안 마동(오영일,복합) △신안 도목(김남중,복합) △나주 동강내수면(장형남,내수면) □경북(29개소) △포항 구룡포(하남한,복합) △경주 연동(이정우,복합) △울릉 학포(박봉식,마을) △울진 직산2리(김재천,마을) △영덕 대진3리(한영태,마을) △울진 거일2리(박영성,마을) △경주 척새(박영준,마을) △경주 수렴(김한철,마을) △영덕 삼사리(김만복,마을) △울진 덕신리(임진열,마을) △경주 가곡(주여조,마을) △영덕 부경(박장섭,마을) △울릉 천부(정상대,마을) △울릉 백석2리(박영일,마을) △포항 구만2리(서상민,마을) △포항 삼정리(이근로,마을) △포항 대진리(김봉택,복합) △포항 영암3리(김달암,복합) △포항 염암2리(허동

식,복합) △포항 석병2리(안천용,복합) △포항 강사리(김춘복,복합) △포항 석병리(우진수,복합) △경북근해자망선주협회(김경호,어선) △포항 양조망협회(김두철,어선) △경북잠수기협회(전영치,어선) △포항소형선박협회(최태학,어선) △울릉 통구미(조태복,복합) △포항 병포리(양원호,마을) △영덕 대진리(김영광,마을) □경남(34개소) △통영바다목장(차홍기,어선) △통영수산업경영인연합회(황희수,어선) △거제 다포(권정호,마을) △거제 학동(최정윤,마을) △거제 탑포(한판주,마을) △통영 산양연화(이기진,마을) △고성 두포(이재문) △거제 해금강(박승일,마을) △거제 근포(엄수덕,마을) △통영 산등(정병호,마을) △거제 수산(김삼용,마을) △거제 구영(김육만,마을) △남해 사항(한수만,마을) △거제 쌍근(김동식,어선) △거제연안통발(박점준,어선) △남해동부연안자망(이정수,어선) △진해연안자망(신호일,어선) △거제연안자망(황호복,어선) △통영연안자망(한태열,어선) △삼천포 죽방렴(전태곤,어선) △통영소형채낚기(안현일,어선) △통영 감성동자망(송성간,어선) △남해 멀치유자망(김치윤,어선) △마산 미더덕영어조합(이경구,양식) △거제 일문면어류양식(정태천,양식) △거제 울포(김광석,복합) △거제 대포(오정식,복합) △거제 법동(박영재,복합) △창원시 동읍내수면(김산,내수면) △통영 옥지연화(이남권,마을) △남해 남부연안자망(이동형,어선) △거제 명사(강매은,복합) △남해정지망(최엄신,어선) △고성 하이(최명규,어선) □제주(14개소) △제주 북촌(김상중,마을) △제주 동귀(강창송,마을) △제주 영흥(최평남,마을) △제주 대서(유징세,마을) △제주 귀덕(홍두봉,마을) △제주 우도어업인(정현우,어선) △서귀포 온평(송충남,마을) △서귀포 고성신양(김봉조,마을) △서귀포 중문(박중협,마을) △서귀포 신흥(홍남,마을) △서귀포 위미리(현승호,마을) △서귀포 태흥2리(고창은,마을) △서귀포 가파(진명환,복합) △서귀포 사계(김봉익,복합)